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2017.9.19



1 기후기술 동향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IPCC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CC, 제 48차 총회 내년 9월 인천서 개최 - 내년 총회에서 UNFCCC가 정식 요청한 특별보고서 'Special report on 1.5 degrees'를 승인할 예정 *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p style="text-align: right;">(연합뉴스 9/16) (환경일보 참고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기관 총 377개 ('17.9.15일 현재) - 27개 기관 가입승인 <p style="text-align: right;">(CTCN, 9/15)</p>
CTCN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회원기관 총 46개 ('17.9.15일 현재) - (주)해강기술, APEC 기후센터 <p style="text-align: right;">(CTCN, 9/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E 총 158개 ('17.9.1 현재) - 동티모르 NDE(환경부) 선정 <p style="text-align: right;">(CTCN, 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CTCN 파견자 소개 - (성 명) 전호식 / Langa Dorji - (소속국가) 한국 / 부탄 - (소속기관) GTC / National Environment Commission Secretariat for the Royal Government of Bhutan - (직 함) 선임연구원 / District Environment Officer - (담당업무) TA 적응분야 지원 /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지원 <p style="text-align: right;">(CTCN, 9/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차 TEC 개최 - 일시 : '17.9.12일(화) ~ 15(금) - 장소 : 독일 본 UN Campus <p style="text-align: right;">(CTCN, 9/15) (TEC, 9/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전환 전망(Energy Transition Outlook)」 보고서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간처: DNV GL* - 주요내용: 2050년 에너지 미래 전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2050년 에너지 믹스 전망, 에너지와 경제성장의 디커플링 효과, 에너지 투자 분야 등에 대한 분석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DNV GL: CTCN의 전략적 파트너로 노르웨이에 소재한 세계적인 시험·진단 전문기업(전문분야: 감축-산업, 신재생에너지, 폐기물관리/적응-보건,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 수자원)</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blue; font-weight: bold;">(CTCN, 9/15) (Report, 9/15)</p>
--	--	---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내	G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C-GGGI,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MoU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기관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국가전략수립, 기술지원, 인력양성 및 역량개발 분야에서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blue; font-weight: bold; font-size: small;">(환경미디어, 9/14) (머니투데이, 9/13)</p>
	ASE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글로벌 에코이노베이션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IC*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17.9.20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처'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 -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주한 태국 대사를 포함한 ASEM 회원국 25개국의 대표단과 친환경 혁신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 예정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ASEIC: ASEM 회원국 중소기업의 에코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해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개도국 친환경적정기술 이전 등 ASEM회원국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purple; font-weight: bold; font-size: small;">(매일일보, 9/18)</p>

3. 기후기술정책

구분		내용
국내	정책 일반	<p>○ LS산전, '일본에서 460억 태양광발전소 수주' (2017.9.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S산전은 일본 혼슈 이시카와현에 구축되는 18MW급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운영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전력판매계약(PPA)을 체결하여 호쿠리쿠전력에 20년 간 전기를 공급할 예정 <p style="text-align: right;">(뉴스피트, 9/14)</p>
		<p>○ 2016년 그린본드 발행은 2015년 기준 2배 이상 증가 (2017.9.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그린본드 발행 규모는 2016년 980억 달러를 넘어서 2015년 (54조 원)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산업은행의 경우 그린본드 발행 등 그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적으로 추진 <p style="text-align: right;">(이투데이 9/15)</p>
		<p>○ 남동발전 탄소펀드 최근 참여기업 큰 폭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남동발전은 '16.3월 글로벌자산운용과 약 60억 원 규모의 탄소펀드 (Carbon Fund)를 조성 - 탄소펀드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펀드를 만든 뒤, 투자금을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자산운용사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 - 당초 60억 원으로 시작한 탄소펀드의 규모는 IBK기업은행 등이 참여하며 총 140억 원으로 증가(이 중 남동발전 투자 금액은 130억 원) - 현재까지 펀드 소진율은 26%이나, 이달 들어 참여 기업이 늘어나면서 소진율은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 <p style="text-align: right;">(이투데이, 9/12)</p>
국외	일본	<p>○ 일본-코스타리카간 2차 JCM 공동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9.8일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서 일본-코스타리카간 2차 JCM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어 양국간 상쇄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 - 일본과 코스타리카는 '13.9월 양국간 협정을 체결한 이래 현재 에너지효율 분야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환경성 JCM 모델 사업 총 2건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 중 <p style="text-align: right;">(JCM웹사이트, 9/8)</p>
		<p>○ 일본-멕시코 2차 JCM 공동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9.11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일본-멕시코간 2차 JCM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어 양국간 상쇄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멕시코는 '14.7월 양국간 협정을 체결한 이래 현재 에너지효율 분야와 메탄 저감 분야의 환경성 JCM 모델 사업 총 2건을 선정하여 재정 지원 중 <p style="text-align: right;">(JCM웹사이트, 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캄보디아 대상 신규 JCM 방법론관련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JCM 사무국은 '17.9.12일 제출된 캄보디아 '국제학교 발전을 위한 초경량 태양광 패널 설치' 방법론(KH001)과 관련해서 '17.9.14-10.13일 기간 공개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 <p style="text-align: right;">(JCM 사무국, 9/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멕시코 대상 신규 JCM 방법론관련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JCM 사무국은 '17.8.28일 제출된 멕시코 'PV 태양광 설비 구축' 방법론(MX_PM001)과 관련해서 '17.9.15-9.29일 기간 공개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 <p style="text-align: right;">(JCM 사무국, 9/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HFC 사용 규제 법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는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예 착수 - 지구온난화보다 오존층 파괴가 더 큰 문제가 되었던 1980년대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프레온가스가 금지되고, HFC가 대체물질로 사용 - 하지만 점차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HFC의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최고 1만 배나 강력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16년 개최된 몬트리올 의정서 제28차 총회는 단계적 HFC 규제에 합의 - 이와 관련하여,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오존층 보호에 관한 현행법을 내년 중 개정해 HFC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저감하여 2036년에는 2011-2013년 대비, 85% 감축하는 안에 합의 <p style="text-align: right;">(연합뉴스, 9/11)</p>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파리협정 탈퇴 번복 여지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의장은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지 않을 것이고, (복귀)협상에 다시 임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라고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이나 기후문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와 기후문제에 대한 효율적 접근을 원하는 것이라 설명 <p style="text-align: right;">(세계일보, 9/19)</p>

	독일	<p>○ 독일, 원유 및 배출권 시장 여파로 2020년 감축 목표 달성에 난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은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독일 싱크탱크인 Agora Energiewend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일이 2020년까지 불과 30-31% 정도 감축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 최근 원유 가격 하락으로 자동차 원료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EU 배출권 시장에서도 배출권 가격이 크게 낮아 주요 오염시설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 <p style="text-align: right;">(AmericanInterest, 9/8)</p>
	중국	<p>○ 중국, 휘발유·경유차 판매중단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9.9일 개최된 ’중국 자동차산업발전 국제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신에너지 차량 개발과 대기오염 완화를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일정표를 마련 중이라고 발표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영국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중국에 구동 중인 2억대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는 중국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국내총생산(GDP) 당 탄소 배출 60% 감축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Guardian, 9/11) (이투데이, 9/12)</p>
	프랑스	<p>○ 프랑스, 내년 정부예산에 기후변화 인센티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콜라 율로 프랑스 환경장관은 18일(현지시간) 일간 리베라시옹과 인터뷰에서 내주 제출되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후변화 방지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다수 담았다고 밝힘 - 그 내용으로 정부는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환하면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을 대폭 확대, 구식 난방장치를 재생에너지 이용 난방기기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3천 유로의 보조금 지급 및 탄소배출세를 현재 톤(t)당 30.5유로에서 내년에 44.6유로로 올리고 2030년 100유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 포함 <p style="text-align: right;">(연합뉴스, 9/19)</p>
	EU	<p>○ EU,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상향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17.9.7일 이 관세를 연장하는 안에 합의 - ‘18.1월 전에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가격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정부 역시 미국과 유럽 지역 태양광 패널 가격의 균형

		<p>을 맞추려 한 의도로 해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EU 지역 태양광 산업 관계자들은 태양광 패널 가격의 상승이 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right;">(Euractiv, 9/11)</p>
--	--	---

2

주요 통계

□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7.9.1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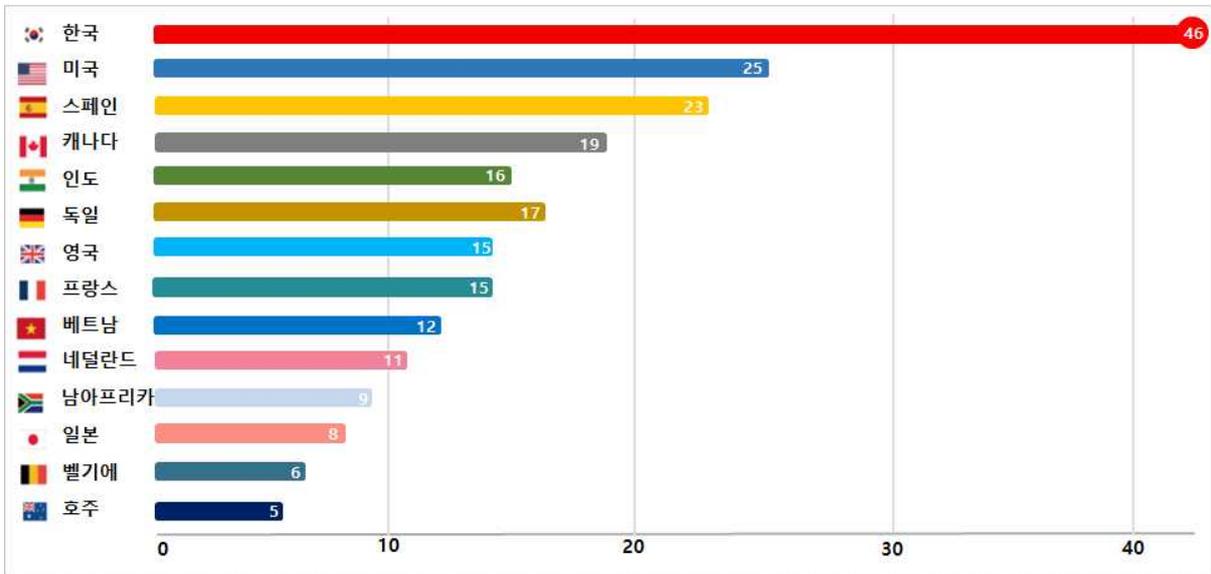
- 197개 당사국 중 160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

□ CTCN 가입기관 현황 (2017.9.15. 현재)

- 총 377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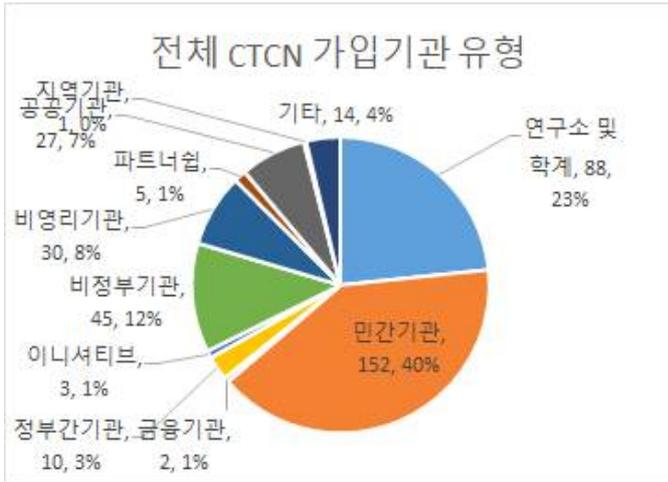
한국 회원기관은 7개('15년말, 9위) → 46개('17.9월)로 확대,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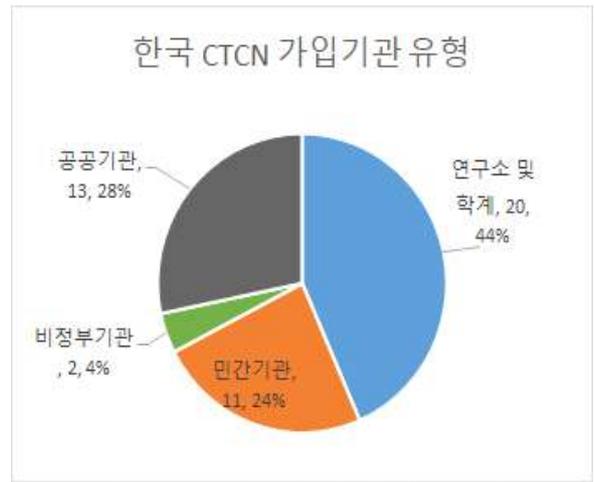
가입기관의 업무유형 현황



□ CTCN 가입기관 유형 (2017.9.15. 현재)



<CTCN 전체 377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46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377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143건으로 41%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78건(22%),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40건(12%), 29건(8%)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46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20건(44%)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3건(28%)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7.9.1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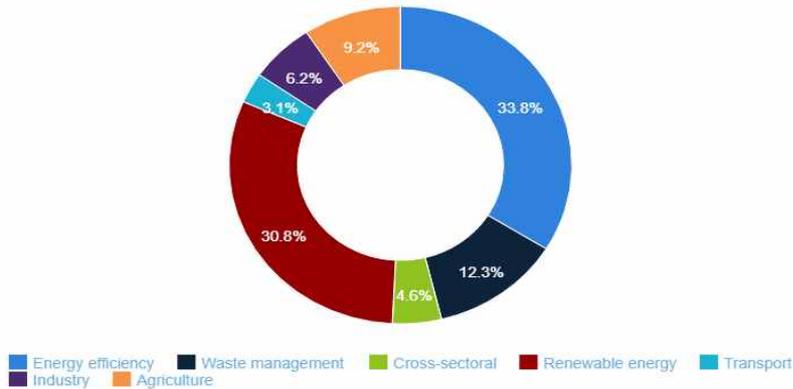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파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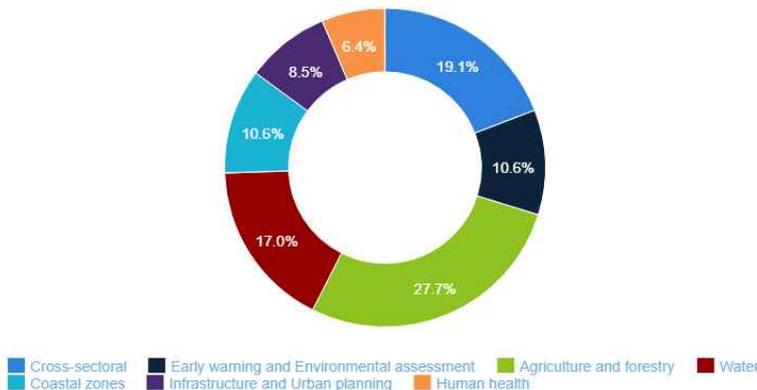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40	KPMG Korea	N0285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44	(주)에스엘글로벌(SLG Co.,Ltd.)	N0356
45	(주)해강기술	N0382
46	APEC 기후센터	N0383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17.9.15 현재)

- 제출된 TA : 193개
- Active TA : 103개 (감축관련 TA-44.7%, 적응관련 TA-29.3%)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